

맞이하기 위하여 전당, 전국, 전민이 총궐기해나서자

총돌격전의 신호포성은 울렸다

내각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 여러 단위 일군들을 만나보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선로동당은 앞으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님의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떨치며 백성의 력사만을 아로새겨갈 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피뫼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전국각지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파감한 총돌격전에 진입하였다.

얼마전 우리는 그들의 앙양된 열의와 앞으로의 투쟁목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싶어 내각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 여러 단위 일군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조선로동당상건 일흔들을 강성번영하는 신조선의 혁명적대정사로 빛내일 궁지안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고있는 전국각지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투쟁의사가 대단하다고 본다.

내각 제 1 사무국 부국장 박병중: 그렇다. 당의 전투적호소에 언제나 결사의 실천으로 화답해온것은 이 세상에서 오직 우리 인민만이 지니고있는 정신적특질이다.

이번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에 접하고보니 조선로동당 제 6차대회를 앞두고 온 나라가 불도 가나 마냥 끓어번지던 1980년의 그 가슴박박 하루하루가 감회깊이 되새겨진다. 그때 온 나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1980년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조선로동당 제 6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의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자!》라는 전투적호를 심장으로 받들고 일어마다에서 전례없는 생산적앙양을 일으켰다. 1980년 1월 초 당시 최첨단과학기술자 중업원들은 《조선로동당 제 6차대회경축 사회주의경쟁》을 벌였을 전국 공장, 기업소 로동자들에게 호소하였으며 그들이 추켜든 중산의 불길은 온 나라에 퍼져나갔다. 당과 수령에 대한 총정을 제일생명으로 간직할 전국의 근로자들은 조선로동당 제 6차대회에 즈음한 당중앙위원회 구호를 가슴깊이 새겨안고 1980년 7월부터 진행된 100일 전투기간 우리 나라 공업생산력사에 이룩하지 않았던 자랑찬 기록을 세웠다. 지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에 접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1980년의 그대처럼 하루하

루를 맞고보낼 열의에 넘쳐 총돌격전의 힘찬 보복을 내질고있다. 전력공업성 부상 김용철: 각지 발전소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를 높은 생산성과로 맞이할 입념안고 펼쳐나섰다. 수력발전부문 로동계급은 물관리와 설비운영을 과학적으로 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수차날개들을 새로 교체하여 발전효율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각지 화력발전소들에서도 여러 호기들의 대보수를 끌어거나 마감단계에서 다그치면서 증산의 지름길을 마련해가고있다.

금속공업성 부상 리은천: 김제철련합기업소에서는 일간연공정을 비롯한 10여개 대상의 현대화, CNC화를 완성한데 이어 야금공업의 현대화, 과학화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목표를 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는 여러 공정에 고온공기연소기술을 또다시 받아들이기 위한 힘찬투쟁을 벌리고있으며 보산철소에서도 주철제련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적대결을 계속하고있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도 중앙대부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북창지구관 광련합기업소 지배인 리영철: 우리 련합기업소는 북창의 대동력기지에 보낸 화력발전소를 맡고있다. 일군은 누구라도 항일유적대나말수가 되어 막장에 위치를 정하고 판부들과 고락을 함께 하고 있으며 하루증산과제를 수행하기 전에는 출결하지 않는 헌신적기풍을 발휘하면서 높이 내세운 석탄생산계획수행에서 전진을 이룩하고있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지배인 양승호: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 6차대회를 빛날 앞둔 1980년 5월말 우리들의 일터에 찾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걸음, 변암기를 비롯한 전력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련합기업소의 오랜 기능공들은 날마다 위훈이 창조되면 그대를 들어켜 보며 또다시 신념을 조여메고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키워주신 남흥로동계급의 본모를 다시 한번 파시하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에 더 높은 실적으로 보답하겠다.

우리는 올해 백두산영웅년 발전소와 청천강제단시발전소

대상설비생산에서 전례없는 기적을 창조한 그 본모를 받들고 대상설비생산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겠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기사장 윤정국: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가 진행될 때는 격동적인 소식에 접하고보니 금수산태양궁전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더욱 그리워진다. 주체비로생산을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헌신의 로고를 아저 한두마디 말로 다 전할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 련합기업소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애국의 비로산을 높이 쌓고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는것이 골금수산태양궁전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 충정의 보고를 몇몇이 올리는 걸이라는 비상한 자각을 안고 힘찬 로력투쟁을 벌리고있다. 우리는 비로생산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작전을 힘있게 내미는것과 함께 생산정상화의 동력을 우렁차게 울림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키워주신 남흥로동계급의 본모를 다시 한번 파시하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에 더 높은 실적으로 보답하겠다.

본사기자 김충성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를 우리 당역사에 특기할 혁명의 최정성기로 내내일 불리는 일념을 안고 산악같이 일떠선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서 혁명의 노래가 울리고있다.

○ 노래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는 위대한 당을 따라 혁명의 한길을 역세게 걸은 우리 인민의 일련단심의 70년혁사의 총화라고 같은 명목이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홍창한 문화예술작품은 그 인식교양적의의와 감화력으로 하여 사람들을 참된 삶과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커다란 위력을 나타낸다.》

조선로동당 제 6차대회 이후 전제 군대와 인민이 당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갈 신념의 맹세를 심장에 새기고 1980년대의 전진길에 펼쳐나오신 력사적인 시기인 주제 70(1981)년에 창작된 이 노래는 전당에 당의 유일적지도체제를 확립하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도록 힘있게 추동하였다. 연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는 당의 기초를 축성하는데서 커다란 기여를 한 좋은 노래라고 감회깊이 추억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이 노래를 100% 지지찬성한다고, 우리의 당과 같은 노래라고 높이 평가하여주시었다.

이 노래가 처음으로 울렸던 그날로부터 3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당과 혁명앞에 다진 신념의 신사도 같은 이 노래와 더불어 천만군민의 총성의 세기는 더욱 붉게만 피어나고있으며 그 위력으로 우리 인민은 뜻깊은 올해의 10월을 앞둔 이 시점에서 불후의 일련단심의 대추정정을 보란듯이 펼쳤다.

○ 주체혁명의 위대한 세시대에 노래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는 영원한 일련단심의

주체가로 계속 높이 울려져오고있다. 노래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는 위대한 당과 영원히 생사운명을 같이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역적불변한 신념과 의지가 담겨져있는 일련단심의 노래, 혼연일체의 노래이다. 당을 따르는 인민의 마음이 영원하듯이 이 노래의 생명력도 영원하다. 이 노래와 같이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혁명의 진리를 구가할 때 그리고 그것을 신념으로 간직한 인민의 목소리가 새대를 이어 울려나올 때 노래는 진정한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는 구절을 우리는 결코 아버지, 어머니세대의 결의만으로 새겨안지 않는다. 새 세대의 전진길에 매아리친 이 노래에는 대를 이어 영원히 당중앙을 따라 혁명의 한길을 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혁명전사들의 심장의 목소리가 함께 울리고있다.

○ 위대한 당의 혁명적명령이 강렬히 맥박치는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는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를 성대히 맞이하기 위하여 펼쳐나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의 전진군이다.

지금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울려나오는 노래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열, 투쟁열을 더욱 뜨겁게 하여주고있다. 우리가 가는 혁명의 길은 일련단심 당을 따르는 총정의 길이다. 일련단심 당과 수령을 따르는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심으로 혁명의 년대마다에서 위대한 승리를 안아온 그 정신, 그 기백을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의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성대히 맞이할 천만군민의 기세를 하늘을 찌를듯이 드높인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일련단심 총정의 한길을 영원히 이어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 노래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는 오늘도 매일도 높이 울려져올 것이다.

혁명의 북소리, 투쟁의 북소리 더 크고 우렁차게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를 소집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는 문화성 일군들의 가슴 가슴을 새차게 격동시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새차게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켜야 합니다.》

문화성 일군들은 당 제 7차대회를 전례없는 혁명의 대전성기로 맞이하도록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총괄하시는데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그 실현을 위한 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짜고들어 진행해나가고있다.

성에서는 당창건 70돐을 맞이하며 주체예술의 70년의 력사를 빛나게 총화한 기념비적결격을 훌륭히 형성하여 내놓은 경합을 살려 계속 전진하기 위한 투쟁과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을 따라

문 화 성 에 서

백위 인민들의 심장에 불을 다는 시대의 명작들을 창작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성의 일군들은 대중의 심장을 뒤편 울리는 명작들을 창작하기 위한 력량전성사업을 짜고드는 한편 실력있는 창작가들로 집중장악 전수를 벌리기 위한 조직사업을 전투적으로 진행해나가고있다.

지금 각 예술단체들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혼교시를 철저히 관철하는데 이바지하는 가극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한 사업,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에》, 《전사의 녀편》, 《가리라 백두산으로》를 비롯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노래들을 관현악으로 형성하기 위한 사업,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약동하는 조국의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형식의 무용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사업 등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성의 일군들은 혁명의 북소리,

투쟁의 북소리를 더 높이 울리려 당 제 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펼쳐나신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승리의 신음을 북돋아주고 그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사업도 짜고들어 진행해나가고있다.

성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받아안은 즉시 여러 예술단체들로 무어진 경제선동대들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주요전투장소에 보내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고 각지에 파견하였다.

피마디가극단, 국립교예단, 국립연극단의 예술인들로 무어진 경제선동대는 개성시, 황해북도 농촌지구들에, 국립민속예술단과 국립교예단의 예술인들로 무어진 경제선동대는 황해남도안의 협동법들로 달려나갔다. 각지에 달려나간 경제선동대

들은 농업근로자들을 당면한 난이탈기전투에 불려일으키기 위한 경제선동을 힘있게 전개해나가고있다.

성의 일군들은 중앙과 지방의 예술선전대, 기풍예술선동대, 예술소조들이 자기 단위의 특성을 살리면서 공연내용을 당의 사상과 정책을 일관시키고 공연형식과 방법을 다양하고 특색있게 하여 들끓는 생산현장과 막장, 포전에서 화신예술활동을 왕성하게 벌려나도록 하기 위한 조직사업도 짜고들어 진행해나가고있다.

문화예술부문의 전체 일군들과 창작자, 예술인들은 당 제 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총돌격전으로 천만군민을 불려일으키는 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고 혁명의 북소리, 투쟁의 북소리를 더욱 새차게 울려갈 불리는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주명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조성이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힘을 집중하여야 할 주력방향입니다.》

달달달기가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여기는 청남구 룡북농장 제 10작업반의 탈곡장이다.

우렁찬 탈곡기의 동음, 곳곳에서 퍼져나는 붉은 기발들, 말발한 마가들날개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달달달기에 여념이 없는 농장원들... 당 제 7차대회소집에 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에 접하고 무한히 격동된 농장원들의 드높은 열의로 하여 전투장은 새차게 끓어번진다.

앞공정은 맑은 농장원들이 날렵한 동작으로 벼단을 끌어 편속시켜준다. 그것을 받은 농장원들이 제빨리 앞맞출 큰 크기로 갈라 가지런히 탈곡기에 먹인다. 번개같은 열의의 일순마다에 불이 이는듯싶다. 높이 쌓

여진 벼단무지들에 지리가 폭폭 난다. 귀중한 달알이 한알이라도 버질속에 묻어나갈새라 갈고갈고 헤쳐면서 단을 묶어 한쪽으로 놓는 농장원들의 작업속도도 그 에 못지 않다. 복대를 처리하며 그속에서 벼알들을 골라내는 농장원의 모습이 미더움에 안겨

런 쏟아져내리는 벼알들을 마대에 가득 채워넣고 저울걸로 날라가는 농장원들도 신바람났다. 한시간 또 한시간... 전투분위기가 고조되는 속에 1분조장의 자방땀땀 목소리가 탈곡기의 동음에 실려 울려져간다. 《450번째 마대가 넘어간다.》

|| 현지보도 ||

애국총정의 분초가 흐른다

청남구 룡북농장 제 10작업반에서

은다. 탈곡기의 가동상태를 주의깊게 살피면서 만가동보장에 여념이 없는 기대공의 구리빛열의 불수록 돌보인다. 오늘도 날렵한 탈곡장에 달려나왔다는 작업반장 강영남동무의 잘도리는 더욱 민만치 않다. 현장의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사소한 빈틈도 나타나지 않도록 솜씨를 남김없이 발휘해간다. 작업열의는 더욱 고조되고 날 높아가니 모든 공정들이 치차처럼 맞물려 진행된다.

한편 정선공정을 거쳐 폭폭

각한 해도 가슴이 막 부풀다. 달달달기시작이 그전보다 1.4배 이상으로 뛰어오르는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작업반장의 이 말을 증명하듯 탈곡장으로 들어선 또 한대의 트랙터가 산같이 실고있는 벼단을 잠깐사이에서 부른다.

전투장은 또다시 용입처럼 끓어번진다. 맑은 일을 더 빨리, 더 질적으로 해제끼려는 뜨거운 승결속이 분초별날달린 기경쟁도표판의 붉은 줄들은 승리의 걸출선을 향하여 킁굴운다.

《배우의 칼바람에 뚫을 달고 조선혁명의 침포따라 폭풍쳐 내달라!》라는 당의 구호를 심장마다에 조이박고 5월의 대추정장으로 보부당담히 들어서려는 이들의 불같은 열의를 담아서인 가 탈곡기의 힘찬 동음이 11월의 하늘가에 매아리친다.

당중앙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리려는 애국총정의 분초조가 흐른다.

본사기자 김성일

위대한 당의 경도따라 나아가는 길에 우리 인민의 모든 꿈과 희망 더욱 꽃피리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훌륭히 완공된 미래과학자거리



종합적인 겨울철체육기지 마식령스키장



우리 인민이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는 현대적인 문화휴식터-문수물놀이장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향이 완벽하게 반영된 국보적인 건축물-과학기술전당

